



액체로 된 황금 I

저는 2남 1녀를 둔 맞벌이 하는 엄마입니다. 91년 결혼해서 92년 8월 첫째아들 경민이를 낳기 전까지도 모유수유를 간단하게만 생각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불편 없이 모유를 먹일 수 있으리란 기대는 출산과 동시에 어리석은 생각이란 걸 알았습니다. 전 애기 엄마가 된 그때까지도 아기가 젖을 빨때만 나오다가 안 빨면 안 나오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유 병이랑 분유를 준비 안 했었어요. 더구나 저는 함몰유두로 다른 사람들은 젖꼭지가 튀어나와 아기가 물기 좋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나마 열심히 마사지도 하였지만 여의치 않았습니 다. 더구나 처음 태어나서 병원에서 준 우유를 먹던 애기는 엄마 젖을 먹이려고 하자 젖꼭지가 자꾸 빠지고 물지 못하니까 막 울고 엄마인 저는 친정어머니랑 어떻게든 먹여볼려고 했지만 잘 안됐 습니다. 사무실에도 출산휴가를 1달밖에 못 받은 상태라 친정어머니는 모유를 먹였으면 좋겠지만 1달 후에 출근해 버리면 모유 맛을 알아서 우유를 안 먹으면 어떡하냐며 아기 성질만 나빠진다고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매일 통통 불어서 아픈 젖을 짜내고 하다가 젖 멈추는 약을 먹고 말았습니다. 친정에서 1달간 몸 조리하고 시택인 제주시로 옮겨서 어머님께 경민이를 맡기고 근무지인 성산포까지 버스 1시간 20분 거리를 출, 퇴근하였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다가 10시-11시 그때서야 잠든 경민이를 옆에 눕히고 밤중에 2-3번 우유 타주고 하면서 키웠는데 엄마 젖이 부족해서인지 걸음로 보기에 우량아 인데도 감기를 달고 살아 4개월, 11개월째 2번이

나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기가 젖을 못 먹고 소젖을 먹여서 그렇다며 짜증을 낼 때마다 제 가슴은 말로 표현을 못하게 쓰라려,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모유를 먹여야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정 안되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꼭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경민이는 어머님께서 키워주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경민이만 키워주고 또는 못 키워주시겠다는 말씀도 가끔 하셔서 경민이 좀 키워놓고 둘째를 가지려고 피임을 하다가 경민이가 4살이 되자 더 이상을 미루어서 안되겠다고 판단, 루프를 뺐는데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8일 주기로 꼬박꼬박 오던 생리가 불규칙하기 시작했어요. 2달에 1번 오기도 하고 올 때는 양이 아주 많아졌다가 5개월이나 생리가 안 와서 호르몬 검사도 하고, 민간요업인 한가지 갱이란 식물의 뿌리에다 어린 병아리를 고아서 여러 번 먹는 등 2년여 동안 도내 병원에도 계속 다니고 여러 가지 좋다는 방법은 다 써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악몽의 세월이었습니다. 그후 불임전문 병원인 차산부인과에서 배란 유도를 시도하던 중 97년 4월말 사무실에서 생리기간이었는데 일을 하다 빈혈로 쓰러져 모 종합병원에 입원 4일 동안 수혈을 받게 되었어요. 담당 과장님이 자궁선근증으로 자궁적출술을 해야 한 댔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몸이 조금 회복되자 서울 오빠에게 부탁해서 서울 삼성병원에 예약하고 올라가니까

제 사정을 들으신 담당과장님께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시더니 최선을 다해 보자시며 1달 후에 수술 날짜를 잡고 내려왔다가 97년 6월 10일 근종만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내려와서 꾸준히 차산부인과 병원에 다니면서 원장님 지시를 따르던 중 그 해 11월에 그렇게도 바라던 임신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동안 겪은 마음고생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임신후 2주마다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3개월째 검사를 가니까 '전치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없는 하느님만 무심하다고 욕했죠. 다른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임신도 잘되고 애기도 잘 낳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누워만 있어야 된다는 말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 직장생활을 그만 두려고까지 했어요. 입덧은 심해서 거의 못 먹고 일요일마다 영양주사를 맞아가며 지내면서도 마음을 안정하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보면 아기한테도 엄마 마음이 전달되어 제자리로 돌아올거야 혼자 최면을 걸어가며 거처를 사무실 가까운 친정으로 옮겼어요.

그때 경민이는 유치원 다닐 때라 유치원 선생님들께 부탁해서 늦게까지 봐달라고 하고 어머니께도 힘들지만 경민아빠랑 경민이 식사 등을 부탁하고 혼자만 친정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가고 하면서 모유수유에 관한 책을 찾던 중 “노만순 박사 부부의 성공적인 수유법”이란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모유수유에 관한 길잡이라 할만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직장여성의 젖 먹이기”라는 소제목은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모유는 직접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물고만 먹는 것인 줄 알았지 짜서 냉장(24시간 보관가능), 냉동보관했다가 우유병으로 먹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건강한 아기를 낳아 품에 안고 실컷 젖을 먹이면서 키워봐야겠다는 일념으로 몸가짐을 더욱 조심스럽게 하면서 직장에도 나가고 병원에도 2주에 1번씩 다니던 중 5개월쯤 되니까 원장 선생님이 웃으시며 이제는 안심해도 되

겠다며 태아와 태반이 제자리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이라며 몇 번이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산전진찰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출산 전에 담당과장님, 신생아실 간호사들에게 모유를 먹여야 한다며, 책에 보니까 저 같은 함몰유두의 경우는 출산 후 두 시간 이

내에 아기에게 젖을 물려야 한다. 이 젖 젖 먹이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절대 고무 젖꼭지를 물려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3일정도 지나야 젖이 나온다며 젖이 불면 내려오세요 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98년 7월2일 오후에 입원수속을 한 다음 98년 7월3일 9시 30분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야 할텐데 속으로 기도하며 걱정스러워 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애써 마음을 진정하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 준비하는 것을 조금 느끼다가 의식이 없었는데 11시 30분쯤 눈을 잠겼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 천천히 눈을 뜨고 주위를 보니 회복실인 것 같았어요. 남자 선생님이 병실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02022**

본 난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엄마젖이 최고! 대국민 홍보작품 수기 부분 새빛상에 입상한 현안호씨의 작품입니다.